

# 북한 학교의 교과 지식 : 관리 체계와 특징, 1945~1950<sup>1)</sup>

이항규(서울대학교 강사, 교육학)

## 1. 서론

“교과서적이다”라는 말은 흔히 원칙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에 가장 가까운 지식 및 태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지식 사회학의 등장과 교육 과정 사회학의 발전은 교과서가 객관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 의식을 제공하였다. 교과서 지식은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특정한 지식이 교과서 지식으로 선택됨으로써 공적 지식(official knowledge)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sup>2)</sup>

---

1)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 논문,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 1945~1950”(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대표적인 연구의 하나로, 미국 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다룬 에니언의 분석

공적 지식은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교과서 지식이 그 사회가 허용하는 가치의 범위 안에서 선정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사회의 성격에 따라 공적 지식 선택 과정에서의 역동(dynamic)의 정도는 차이가 난다. 집단 간의 갈등과 경쟁이 허용된 사회일수록 공적 지식의 선정과 관련된 분투와 쟁송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교과서는 이 역동 속에서 종종 집단 간의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지곤 한다.<sup>3)</sup> 이는 일반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반대로 대부분의 전체주의 사회의 경우에 지식 선정은 타협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다.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된 지식과 가치, 태도가 정당화되고 부과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공적 지식이 선정·관리되는 체계와 교과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공적 지식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 사회주의 초기 건설기이며, 주로 인민 학교 교육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 기구는 교과 지식의 선정, 전달, 평가 과정을 어떻게 제도화하였는가? 둘째, 교과서 지식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이 두 질문은 교과 지식이 관리되는 ‘형식’상의 특징과 교과 지식의 ‘내용’상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

을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고등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7종의 역사 교과서에 남북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경제사와 노동사 부분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 교과서가 경제 발전, 노동 조합, 노사 관계 등에 대하여 사실(史實)과 다른 기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과서 서술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기업주의 관점과 일치 혹은 친화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교과서는 특정 관점의 지식을 공적 지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신념을 정당화하고 다양한 관점의 선택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에니언, “이데올로기와 미국교과서”, 이인효 편역, 『교육과 사회』(서울: 교육과학사, 1991).

3) Michael W. Apple, *Official Knowledge : Democratic Education in Conservative Age* (New York : Routledge, 1993).

## 2. 교과 지식에 대한 국가 관리 제도

국가가 교육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는 사회마다 다르다. 공식적인 지식의 선택, 전달,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국가 기구가 관리하는 사회가 있다. 교과서 정책의 경우에도 시장 원리에 따라 교수 자료가 선택될 수도 있고, 국가가 제정한 교과서가 공급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식적인 지식은 국가에 의해 선정·승인된다. 따라서 교사가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의 전달과 평가 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제한적이거나 인정된다. 수업은 '교사의 신성한 권리'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학습 결과의 평가는 교육 행정 기관의 지침에 따르지만 교육 기관 외에 다른 국가 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한국은 교육 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와 교사의 상대적인 자율성의 영역이 절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 초기 단계에 이미 학교의 교과 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식적인 지식은 국가에 의해 선정되어 일선 학교에 공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는 지식의 전달과 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식의 전달자인 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였다.

### 1) 교과 지식 선정, 전달, 평가의 체계적 관리

해방 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구는 1945년 10월 13일 '북조선5도행정국(이하 행정국)'이 조직되면서 만들어졌다. 행정국의 한 부

서인 교육국은 그때까지 각 학교별, 지방별로 임시 방편적으로 운영해 온 교육 과정을 통일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교육국은 11월 21일 <북조선 학교 교육 임시 조직 요강>을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을 공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어, 일본사, 일본지리 등의 교과를 조선어, 조선역사, 조선지리로 바꾸고, 실업 과목과 체육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과학 등 일반 교과의 시수를 늘린다는 것이었다. 교육 과정은 그 후 1947년과 1949년에 두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는데, 그 개정 원칙은 이 임시 조직 요강의 기본 골자와 유사하였다. 교육국은 식민지 교육 과정을 개정하면서 일본과 관련된 일련의 교과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저급한 실용 교육을 부과하였던 실업과와 군사적 동원을 목적으로 한 체육 및 교련 과목의 비중을 대폭 줄여나갔다.<sup>4)</sup> 또한 교육 과정안을 정비함과 동시에 교과서 발간을 시작하였다.

교과서의 부재는 해방 후 각급 학교에서 직면한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식민지 시기 교과서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교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945년 11월에 교육국은 편찬부를 설치하고,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착수하였다.<sup>5)</sup> 편찬부는 교과서 내용을 저술할 200여 명의 집필단을 구성하였고, 전국적으로 500여 명 이상의 교사, 문학가, 전문가들을 ‘방조자’로 조직하였다.<sup>6)</sup> 교육국은 국내 집필역량을 총 집결하는 한편 소련군 정청에 소련 교과서의 지원을 요청하

4) 식민지 교육 과정이 세 차례에 걸친 교육 과정 개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121~131쪽.

5) 초기 교과서 편찬 과정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조선 인민으로서 교과서 편찬을 하여 본 일이 없고, 인재의 부족과 인쇄 능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 사업 앞에 막혀 있는 악조건”들을 극복하여야 하였다. 신원우, “제일차 교과서 편집을 마치고”, 『인민교육』, 제3호(1947), 29쪽.

6) 신효숙,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160쪽.

였다. 초기 교과서는 국내 저자들의 집필과 소련 교과서의 번역에 의해 편찬되었다. 편찬 교과서는 최종적으로 ‘최고심사위원회’가 내용을 검열한 후에 인쇄되었다.<sup>7)</sup>

편찬부를 설치하고 교과서 제작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에 교과서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1946년 8월, 인민 학교 7개 과목, 중학교 13개 과목 총 57종의 교과서가 발간 보급되었다. 이후 교과서 발간에 박차를 가하여 1948년에는 각급 학교 교과서 204종 약 850만 부가 발간되었다.<sup>8)</sup> 1948년 현재 북한 전역에서 출판된 일반 도서의 양은 총 409종, 599만 부 정도였다.<sup>9)</sup> 이에 비추어보면 교과서의 발행 부수는 당시 출판된 일반 정치, 문학, 예술 서적의 총합보다 월등히 많았다. 교과서 출판을 위해 각도 인쇄소 책임자들이 당과 직업 동맹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생산 배가 운동을 결의하였고, 각 공장 노동자들은 목표량 달성을 위해 힘썼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9년경에는 대부분의 인민 학교와 중학교에서 새 교육과정안에 맞는 국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국정 교과서가 발행 보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 내용이 통일되어 갔다.

국가 기구는 교과서 발행을 독점함으로써 지식을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몇 가지 제도를 통해 지식의 전달 과정을 통제하였다. 교육국은 1947년부터 각급 학교 교수 요강을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다. 교

7) ‘최고심사위원회’가 어떤 조직이며 언제부터 조직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949년에 발행된 모든 교과서의 뒷면에는 ‘심사자 최고심사위원회, 발행자 교육성’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교육국은 1948년 공화국 설립 후 교육성으로 바뀌었다). 이 위원회는 중앙 교육 행정 조직의 대표와 당 대표, 해당 사회 단체 대표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정치성’의 검열은 당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교과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도 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8) 문철,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 민주교육의 회고와 전망: 교과서 편찬사업”, 『인민교육』, 8·15기념호(1949), 90쪽.

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368쪽.

수 요강은 “학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수여할 지식과 관습의 범위를 정해”주는 문서로<sup>10)</sup> 교수 목표 및 수업 방식에 대한 교사용 지침서이다. 교수 요강은 인민 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대학교에도 배포되었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교수 요강의 제작과 보급은 “교원이 자의로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교수하던 무질서한 현상을 퇴치하고, 엄격히 제정된 국가적 문건에 의하여 목적 지향적인 교수를 진행”<sup>11)</sup>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녔다. 이 정책은 수준 미달의 교사에 의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전국 학교의 교육을 표준화시킨다는 효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사적 견해가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식의 전달 과정을 전적으로 국가 통제하에 두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수업은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사가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되었다.

각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수업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기제로 교육국은 사전 수업 지도안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교사는 교수 요강에 따라 매 수업 교수안(教授案)을 작성하여야 했다. 교사는 교수안을 교무 주임과 교장으로부터 결재받았고, 결재 후에야 교수안대로 수업할 수 있었다. 교수안 검열은 인민 학교와 중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도 규칙이 되었다. 교수안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열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교과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교과 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는 공식적인 지식의 선정과 전달 과정을 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평가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완성되었다. 학생들은 진급과 졸업을 위해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시험은 1947년부터 실시되었다. 국가 시험은 예능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10) 교육학 제2집 『교수론』(평양: 로동신문사, 1948), 96쪽.

11) 교육성, 『해방 후 10년간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58쪽.

걸쳐 이루어졌다. 시험의 형태는 주로 구답 시험이었고, 몇몇 주요 과목(국어, 수학, 외국어)의 경우에는 구답 시험과 함께 필답 시험을 병행하였다. 시험은 학년 말인 6월에 약 보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었다. 구답 시험 문제는 교육국이 미리 작성하여 배포한 시험 문제집에서 주로 출제되었고, 필답 시험은 전국 표준 문제로 이루어졌다. 각 학교별 국가 시험 성적은 최종적으로 교육국에 보고되었다.

국가 시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 학교 시험위원회의 구성이다. 시험 위원회에는 그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밖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즉, 교육 행정 기관, 당, 사회 단체 대표들이 시험 위원에 포함되었다. 교육 행정 기관 대표의 역할은 그 학교의 시험이 규정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고, 당과 사회 단체 대표의 임무는 학생들의 답변의 정치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시험 위원으로 당과 사회 단체 대표가 참여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평가에 최종적으로 당이 관여하는 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교과 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는 이와 같이 지식의 선정과 전달, 그리고 평가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었다.

## 2) 교사에 대한 관리

그러면 교사들은 이러한 강력한 국가 관리 체제에 어떻게 적응하였는가? 한국 교육 운동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교육 과정 통제는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교사들은 교육 내용의 선정뿐만 아니라 전달과 평가 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국가의 강력한 관리에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혹은 수용하였는가? 중앙 정부의 통제에 대하여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의 하나로 교사들에 대한 국가의 조직적 관리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직업 동맹의 산별 조직인 교원문화직업인동맹(이하 교원 동맹)에 소속되었다. 교원 동맹은 1946년 4월 5일에 창립되어 2개월 만에 초등 학교 교원의 64.4%, 중등 학교 교원의 73%를 동맹 조직에 포섭하면서<sup>12)</sup> 교사 대중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30세 이상의 교원들은 교원 동맹에, 30세 미만 교사들은 민청으로 조직되었다. 널리 알려졌듯이 직맹이나 민청 등 북한의 사회 단체들은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노조나 자치 단체가 아니라, 당의 외곽 조직으로 대중과 당을 연결하는 ‘인전대(conveyor belt)’의 역할을 하는 정치 조직이다. 교원 동맹에 가입한 교사들은 동맹 회의, 독보회, 정치 행사, 비판회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직은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 활동은 교사의 여가 시간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할 시간적인 여유를 박탈함으로써 교사들의 조직적인 반대를 제압하는 기능을 하였다.<sup>13)</sup>

교사들을 국가 기구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원 동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 교육 행정 기구의 상시적인 검열을 통해서도 확인

12) 신효숙,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 175쪽.

13) 다음은 한국전쟁 전에 경기도 양양의 한 인민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인물의 구술 기록이다. 이 진술은 교사들이 동맹 활동을 통해 국가 교육 정책에 순응하게 되는 단면을 보여준다. (“동맹 회의는 자주 합니까? : 괄호 안은 면접자의 질문) 일주일에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자주 하면. 그러구 또 교양 같은 것은 뭐 아주 자주 해요 그 사람들은 교양이라는 게 전부 좌익 사상을 주는 거니까. (교양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그거를 에, 돌아가면서 말아가며 하고 그것두 다 내적으로는 노동당 세포, 거기서 다 조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사전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그저 교양은 독보회라는 명칭을 가지구 하는데, 독보회. 그 시사 교양은 누가 말고 또 뭐 무슨 다른 학습은 누가 말고 이렇게들 돌아가면서 하고 신문 같은 데서 기사를 취해 왔다가 그것을 발표하구, 독보회라구. 그런 걸 준비하려하는 사전에 신문두 봐야 하고, 또 책을 구해서 봐야 하고 그래야지. 그래 가지고 이론이 모두 밝게 되고, 사람들이 판데 정신을 돌릴 시간들이 별루 없지. 여기서는 너무 자유니까니 그만 괜히 엉뚱맞은 짓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정신 다른 데 돌릴 새가 없고, 또 못된 짓 할 수도 없고” 이항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 1945~1950”, 209~210쪽.



할 수 있다.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에 소장된 교육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는 교사의 신상 기록이다. 이 기록은 주로 중등 학교 교사들의 이력서, 자서전, 평정서 혹은 문의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평정서 혹은 문의서는 개개 교원들에 대한 각 시, 군 교육국 시학(視學)들의 평가서이다. 시, 군 인민위원회 교육국 간부계 시학들이 작성한 이 문서는 각 교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정 출신, 사회 성분, 학력, 입당 여부와 시기, 본적지, 현주소, 해방 전후의 직업)과 함께 그 교사에 대한 시학의 종합적인 평가가 적혀 있다.

시학의 평가 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교원의 가정 배경에 대한 것이다. 출신 성분, 가정 환경,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특히 친지 중에 이남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지, 종교를 믿는 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둘째, 교원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교과 지식 정도, 교수 능력, 사업 태도 등이 평가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것은 사업 태도이다. 사업 태도는 그 교사가 당의 교수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정치 학습에 성실한지, 성분 개조를 위해 노력하는지 등과 같은 정치 성향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셋째, 이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시학의 최종 의견을 적었다. 시학의 최종 평정은 이 교사의 인사(人事)에 관련된 것이다. ‘간부로 등용’, ‘현직 유임’, ‘교양대상’, ‘전근’, ‘전직’, ‘해직 대상’ 등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sup>14)</sup> 이 시학의 평가에 따라 해당 교사들의 인사 조치가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평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사 개개인의 신상 및 태도에 대해서 교육국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를 상시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14) 시학의 평가를 통해 당시 북한 당국이 ‘바람직한 교사’로 간주했던 교사상을 알 수 있다. 최종적인 시학의 평어와 그 교사의 가정 배경과 사업 태도에서 특성과의 관계에, 위의 논문, 232~244쪽 참조.

점이다. 그리고 이 검열 결과는 교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들이 당과 행정 기구의 조직적 관리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당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교과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sup>15)</sup> 그 결과 북한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 과정과 수업을 둘러싸고 국가와 교사가 대립하고 타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못했다. 대신 교사는 국가가 제정한 교과서를 가지고, 사전 검열된 교수안에 따라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일찍이 교과 지식의 선정에서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 교육 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저항이나 왜곡 없이 실현될 수 있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어 나갔다. 즉, 국가가 계획한 교과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그렇다면 일사불란한 국가의 통제하에 학생들에게 전달된 교과 지식은 내용상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 또 국가는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와 태도를 교육하고자 하였는가? 이 점은 당시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15) 이러한 국가 관리 체계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 사회주의 교육 개혁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북한에서 저항하기보다는 남만으로 이주해 버리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남아 있는 교사들이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일부 교사들의 식민지 교사 전력(前歴)이다. 해방 직후 교사 수요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식민지 학교의 조선인 교사들은 대부분 교직을 유지하였다. 국가가 '식민지 잔재 청산'을 서둘 펴리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을 해야 했으며, 과거를 속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민지 교사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213~219쪽 참조.

### 3. 교과서 지식의 메시지

이 장에서는 1949년 인민 학교 1학년과 5학년용 국어 교과서를 분석할 것이다. 필자는 1949년 인민 학교 교과서를 미국 국립문서보존소 기록군 242에서<sup>16)</sup>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의 인민 학교 교육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의 초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하는 지식과 태도를 가르치는 ‘국민 공통 교육’이다. 북한의 학교 규정에 따르면, 인민 학교는 “공민으로서 필요한 기초적 지식 기능을 습득 숙련”<sup>17)</sup>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민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북한의 인민들이 대중 교육을 통해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기초 지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인민 학교 교과 중 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국어가 인민 학교 수업 시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 교과이기 때문이다. 1949년 9월 현재 교육 과정안에 따르면, 인민학교 1, 2, 3학년의 1주일 수업 시수 24시간 중 10시간이 국어과에 할애되었다. 4, 5학년의 경우 1주일 수업 시수 30시간 중 국어 시간은 9시간을 차지하였다.<sup>18)</sup> 둘째, 국어 교과서에는 읽기 자료가 실려있으므로, 텍스트에 내포된 특정한 가치를 분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교육성에서는 국어를 “인민 학교에서

---

16)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 국립기록보존소 기록군(RG) 242에 포함된 북한 기록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노획한 문서들이다. 원자료명은 ‘한국에서 미군이 접수한 기록(Records seized by U. S. Military Forces in Korea)’이나 흔히 ‘북한 노획 문서(Captured Documents in North Korea)’로 불린다. 북한 노획 문서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방선주, “노획북한필사문서해제”,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아시아문화』, 창간호(1986).

17) 송진파, “새로 제정된 각급학교 규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인민교육』, 제3호(1950), 50쪽.

18) 교육성, 『해방 후 10년간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 56쪽.

가장 기본적인 교과”로<sup>19)</sup> 간주하였다. 국어가 중요한 이유는 인민 학교 저학년에서는 다른 과목의 기초 지식을 국어과에서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고, 국어 읽기 교재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 교재로는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온갖 것이 다 교재로 된다. 부지불식중에 애국심과 민족적 정서를 북돋아주기에 가장 알맞은 과목이다. (중략) 이는 오늘날 현대단계에 있어서 참된 민주주의적 의식과 건국 투사적 신심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국어과를 통해 가르려는 “참된 민주주의적 의식과 건국 투사의 신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하 1학년과 5학년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글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해 보자

## 1) 인민 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교육성이 발행하고, 최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한 1949년 인민 학교 1학년 교과서는 총 66개과로 되어 있었다. 1학년 교과서이므로 각 단원은 기본적으로 한글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 간단하고 기초적인 읽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원은 주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을 소재로 삼았다. 계절·날씨와 같은 자연 묘사,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 놀이에 대한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소재들만 보면, 북한 교과서와 남한 교과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소재를 통해

19) 교육성, 『교수요강(인민학교용)』(1950), 1쪽.

20) 리선섭, “국문교수상 유의할 점”, 『인민교육』, 제5호(1947), 48~49쪽. 강조는 인용자.

전달하는 주제를 분석하면 북한 국어 교과서 내용의 특징을 볼 수 있다.

### (1) 노동하는 삶의 가치

전 단원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노동하는 삶의 가치 및 일의 즐거움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글의 소재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봄을 소재로 한 단원에서는 봄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묘사한다.<sup>21)</sup>

봄이 되었습니다. /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풀과 나무 싹이 돋아납니다.  
진달래꽃 살구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 농민들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나물 캐며 재미나게 놀니다.  
(30과, 봄)

봄은 꽃피고 새싹 돋는 계절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이며, 방과 후 학생들이 봄나물을 캐고 노는 계절로 묘사된다. 기본 주제는 농민이 논밭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일상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노동과 결부시키는 것은 다른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닭이 울니다. / 「꼬끼요 꼬끼요」 / 수탉이 소리를 칩니다. / 「애들아 어서 일어나라」

해가 솟아오릅니다. / 송아지가 벌판으로 나갑니다. / 「매에 매에 매에」

새들이 숲속에서 노래합니다. / 「지지 재재 지지 재재」

공장에서 마치 소리가 납니다. / 「뚝 딱 뚝 딱」

방앗간에서 방앗소리가 들려옵니다. / 「콩 콩 콩」

---

21) 이하 인용문의 강조는 인용자.

모두가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암탉이 읊니다. / 「꼬꼬댁 꼬꼬댁」

암탉이 말을 합니다. / 「애들아 어서 맘마 먹고 학교에 가거라」 (30과, 아침)

아침 정경을 모두가 깨어나 활기차게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물들이 깨어나고, 공장과 방앗간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들의 본분, 즉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다. 소재는 ‘아침’이지만, 내용이 담고 있는 주제는 ‘모두가 일을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일한다’는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족에 대한 단원들이다. 다음 두 글은 온 가족이 농사일에 나서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는 농사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이 많으시지만 퍽 튼튼하시어 집안 일을 도우십니다.  
형님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나는 닭에게 모이를 주고 학교에 갑니다.  
(29과, 우리집)

아버지는 소를 몰아 밭에 가시고, 할아버지는 이랑을 지으십니다.  
어머니가 씨를 뿌리시면 형님과 나는 뽕뽕 밟으면서 따라갑니다.  
할머니하고 누님은 씨를 묻으면서 또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온 집안 식구가 나와서 즐겁게 일을 합니다. (33과, 씨뿌리기)

위 글에서 부모, 조부모, 형제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을 한다. 나이가 많지만 일하는 것은 당연하며,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은 즐거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것의 가치, 게으름에 대한 비판은 우화의 형식

으로도 표현된다. 다음 글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는 메시지를 우화로 다룬 것이다.

개와 돼지가 놀고 있었습니다. 닭은 벼알을 가지고 와서 「이 벼를 누가 심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돼지와 개는 싫다고 모두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지」 하고 닭은 혼자서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벼가 익었습니다. 「이 벼를 누가 거두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개와 돼지는 또 싫다고 하였습니다. 닭은 혼자 거두어다 밥을 지었습니다. 「이 밥을 누가 먹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개는 「내가 먹지」 돼지도 「내가 먹지」 하였습니다. 닭이 말하기를 「심기도 내가 하고 거두기도 내가 하였으니 밥도 내가 먹어야겠소」 하였습니다. (58과, 부지런한 닭)

씨를 뿌리지도 추수하지도 않고 밥을 먹으려는 개와 돼지를 비판하고, 노동에 참여한 닭만이 수확물을 획득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의 하단에는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과제 중 한 문제는 “일도 하지 않고 놀고먹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는 이와 같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농민과 공장 노동자 등 주로 육체 노동자가 등장 인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정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사를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는다. 5학년 교과서 분석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은 농민과 노동자, 군인, 혁명 지도자, 학생, 교사로 국한되어 있다. 예컨대 상인, 사무원, 경영자 등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계급 출신 인물이 교과서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근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1학년 교과서 내용의 주요 특징이다.

## (2)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인민의 본분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과서는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다. 1학년 교과서에서 구체적인 인물이 실명(實名)으로 언급되는 것은 두 사람, 즉 김일성과 스탈린뿐이다.

김일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세 과에 소개된다. 3과 “꽃다발”은 고운 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어 “우리의 령도자 김일성 장군에게 드리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6과 “두손을 높이 들고”는 아가의 재물을 묘사하면서 마지막에 “김장군 만세 만세 부르자”는 문장으로 끝난다. 66과 “김일성장군”은 직접적으로 김일성에 대해 언급한 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독립 위해 / 싸우신 김장군. / 승리의 깃발 휘날리며/ 돌아오셨네//  
동무야 노래하자 / 김일성 장군님을 / 뒤를 따라 배우며/ 어깨 걸고 나가자//  
빛나는 공화국을 / 세우신 김장군 / 어린이들 앞길을/ 밝혀주셨네//  
동무야 노래하자 / 김일성 장군님을 / 공화국기 높이어/ 어깨 걸고 나가자//  
우리들의 행복 위해 / 힘쓰시는 김장군 / 배움의 문 우리에게/ 열어 주셨네//  
동무야 노래하자 / 김일성 장군님을 / 한뜻으로 받들어/ 어깨 걸고 나가자.

김일성은 독립을 위해 싸워 승리하고, 국가를 창건하고,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주며 행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므로 그의 뜻을 받들어 함께 나가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탈린의 경우에도 그가 독일과 싸워 유럽 민족을 해방시키고, 조선을 일제로부터 구해준 사람이며, 조선인과 전 세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쏘련의 서울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전에는 훌륭한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이를 잘 알고 있으며 또 존경합니다. 그이는 독일 팻 쇼늄들을 쳐부시고 유로파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내 주시었고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그이의 이름은 이오시프 비싸리오노비츠 쓰딸린이라고 부릅니다. 쓰딸린 대원수는 쏘련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벗이며 스승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나라와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해방자이십니다. 쓰딸린 대원수는 온세상 사람들을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하려고 언제나 힘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쓰딸린 대원수는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51과, 쓰딸린대원수)

김일성과 스탈린은 1학년 교과서에 등장한 유일한 역사상의 인물이다. 국내외 많은 위인들 중에서 유독 두 사람만이 선택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그 외의 인물들은 어린이, 교사, 가족 등 학생 자신 혹은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들로 이름 없이 제시된다. 평범한 인민들의 역할은 열심히 노동하며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학생은 공부를, 선생님은 가르침을, 가족들은 농토에서 공장에서 노동을 열심히 하는 인물들이다. 지도자는 이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부모 같은 사람들로 표현되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구성은 이와 같이, 익명(匿名)의 인민들이 실명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구도로 되어 있다.

### (3) 남녀 평등

교과서 내용은 매우 섬세하게 남녀 평등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남녀 평등의 내용은 노동에서의 평등과 결부되었다. 즉, 남녀 모두 일한다는 것이다. 다음 인용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아빠 공장은 크기도 해요 / 우리 엄마 공장은 넓기도 해요  
 저기 저 공장에서 무엇 만들어 / 흰 연기 까만 연기 폭폭 나올까?//  
 흰 연기 나간 덴 하얀 비료 나오고 / 까만 연기 나는 덴 빨래비누 나오지//  
 아빠 만든 하얀 비료 누구를 줄까? / 현물세 갖다 준 아저씨네 주지.  
 엄마 만든 빨래비누 누구를 줄까? / 바다 고기 잡아 준 아저씨네 주지.  
 (61과, 공장 연기)

이 단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녀 직업상의 평등의 문제이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공장에서 노동을 한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사 노동과 농업 등 가족과 촌락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글에서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로 그려지고 있다. 위 글은 또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품 교환에 대해서 설명한다. 현물세를 낸 농민들에게 비료가 공급되고, 수산물을 공급하는 어민들에게 비누가 공급된다. 농민과 어민들도 역시 노동하는 존재이며, 각자의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킨다.

교과서 내용에서 여성을 평등하게 다루려는 노력은 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학년 교과서는 각 단원의 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삽화를 통해서도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학년 교과서에는 대부분 한 과에 하나씩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 삽화의 특징은 남녀가 동등한 비율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1학년 교과서 삽화에 등장하는 어린이들 중에 남자 어린이는 27명, 여자 어린이는 28명이다. 가급적이면 모든 상황의 그림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학습, 가정에서의 학습, 꽃밭에 물 주기, 운동장 놀이 등 학생 생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그림은 항상 함께 등장한다. 그림에서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교사를 그릴 때도 반영되었다. 교과서 전체에서 교사 그림은 모두 여섯 번 제시되는데, 이 중 3명은 남교사, 3명은 여교사이다. 한 과에 교

사가 남자로 그려지면, 다음 과에는 여자 교사가 등장한다. 실지 이 시기 교원 중 여자 교사가 남자 교사에 비해 현저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삽화에 등장하는 남녀 교사 수는 동등하였다. 남녀 평등법이 시행된 후 의식적으로 남녀 평등을, 적어도 상징의 수준에서는 실현하고자 애쓴 흔적을 볼 수 있다.

1학년 교재의 내용은 학생 주변 일상을 소재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전달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근면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순종, 남녀 평등이다. 이것은 교과서 글과 삽화 등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 1학년 교과서의 내용은 아동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 일상을 소재로 평이한 언어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소재와 등장 인물, 주제, 장르가 확대된다.

## 2) 인민 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

1학년 교과서에서 학교 및 가정 생활, 자연 등에 한정되었던 소재가 5학년 교과서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고, 전체 분량도 크게 늘었다. 국어 교과서는 전체 85개 과 총 441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르도 확대되어 시, 소설, 우화, 전기, 수필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 중 주류를 이루는 장르는 시였다. 시는 전체 85개 과중 절반이 넘는 45개 과를 차지하였다. 작가별로 구분하면, 작가를 알 수 있는 단원 중에 약 절반은 소련 작가의 작품이었다. 85개 과중에서 러시아와 소련 작가의 작품이 38개 과에 달하였다. 국내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이 시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22) 서사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학년 교과서는 대부분 한 단원의 분량이 길고, 글의 구성이 복잡하며,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교과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교과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를 추론하고자 한다. 시와 소설, 수필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 중 등장 인물이 분명한 55개 과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소년·소녀, 군인, 지식인, 농민,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등장 인물의 유형을 교과서 수록 빈도별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1949년 인민 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 등장 주요 인물의 유형 및 빈도

주인공의 유형	소년·소녀	군인	지식인	농민	노동자	계
단원 수(%)	20(36.4)	14(25.5)	12(21.8)	6(10.9)	3(5.4)	55(100)

22) 교과서에 작품이 실린 북한의 시인들은 다음과 같다. 조기천(3편), 민병균(3편), 리원우(3편), 김조규(2편), 김우철(2편), 박세영, 백인준, 이정구, 신동월, 박남수, 마우룡, 신영길, 홍순철, 전민, 원상준, 임순득, 조정철. 이 중 한국 문학 사가들에 의해 월북작가로 알려진 인물은 민병균, 김조규, 김우철, 리원우, 박세영, 백인준 등이다[권영민 외, 『월북문인연구』(서울: 문학사상사, 1989), 18쪽]. 이들은 주로 1946년에서 1947년 사이에 월북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정권의 개혁을 찬양하는 다수의 시를 지었으며, 이 시들 중의 일부가 교과서에 실렸다. 3편의 시가 실린 조기천은 재소환인으로 1945년에 입북한 이후 1951년에 폭격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 문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약한 시인이다. 조기천은 문예총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교과서에 실린 시 중 “백두산”(63과)과 “우리의 길”(2과)은 각각 제1, 2회 북조선예술축전에서 일등상을 받은 작품이다. 3편의 시가 실린 민병균은 문예총 총서기장을, 애국가의 작사자인 박세영은 문예총 출판국장을 지낸 바 있다. 국어 교과서 집필자와 문예총과의 조직적 관계는 아직 확실히 밝힐 수 없지만, 각급 학교 국어 교과서 작품 집필과 수록에 문예총이 긴밀히 관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북한의 문단 상황에 대해서는 현수, 『적지6년의 북한문단』(서울: 국민사상지도원, 1951)을 참조.

교과서 등장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든 가상 인물이든, 대부분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의 표본이 된다. ‘홀륭한’ 인물들에 대해 읽는 것은 모델링(modeling) 학습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면 인민 학교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교과서에 제시된 등장 인물들은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

### (1) 소년·소녀: 어린 혁명 투사

등장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의 소년 소녀들이다. 그런데 소년 소녀 주인공들은 평화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어린 투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0과 어린 교수들의 희생”은 1872년 파리 코뮌 당시, 한 요새의 전투중에 4명의 어린 소년들이 코뮌을 수호하기 위해 적진에 들어가 적의 공격을 미리 알리는 북을 울린 후에 사살된다는 이야기이다. “31과 가브로쓰”는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라블” 가운데 혁명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어린 소년 가브로쓰가 혁명에 참여하여, 청년 혁명가에 못지않게 열심히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는 장면을 실었다. “40과 돌아이”는 타게스탄이라는 사막에 있는 돌아이라는 바위에 대한 전설이다. 물이 귀한 이 지방에 약탈자가 침략하여 목동에게 안내하라고 한다. 목동은 물도, 땅도 우리의 것이므로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침략자가 그를 죽이려는 순간 목동은 돌로 변하였다는 내용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항거해 싸운 소련의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도 몇 개 과에 걸쳐 소개되었다. “76과 용감한 소년”은 독일에 점령된 마을의 한 소년이 소련군을 찾아가 적의 상황을 알려주고, 무기고를 폭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77과 령도자”도 12세 가량의 소년 두 명이 마을을 점령한 독일군 막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길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78과 빼오넬의 무덤”은 독일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소년 단원을 애도하는 시이고, “79과 따냐”는 의용병으로 지원한 소녀가 독일군 진영을 공격하다 포로로 잡혀 모진 심문에 굴복하지 않고 마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이야기이다.

어린이 혁명가에 대한 강조는 항일 투쟁에 참여한 조선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64과와 65과는 “빨치산의 딸”이라는 빨치산 소년 단원에 대한 전기를 상, 하편으로 나누어 실었다.<sup>23)</sup> 정만금이라는 여성이 아홉 살 때부터 항일 유격대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10여 년간 빨치산 투쟁을 계속해 온 역사를 그리고 있다. 그는 일본군에게 부모를 잃은 후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씩씩하게 항일 투쟁에 참가하였다.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서사적이고, 그 내용과 묘사가 비장하다. 등장 인물의 죽음을 장엄하게 묘사하고,<sup>24)</sup> 그들이 적에 대해 갖는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하기도 하였다.<sup>25)</sup> 이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애국심,

23) 이 과는 책의 본문 중에 그 분량이 가장 많다. 두 과를 합하여 40쪽이 넘는다.

24) “79과 따냐”에서 주인공 처형 장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조야에게 옷을 입혔다. 그의 가슴에는 그에게서 입수한 휘발유 병과 「방화자」라는 패를 달았다. 이리하여 교수대를 만든 광장으로 끌어갔다. 현장은 10여명의 칼을 빼어든 기병과 수백명의 독일 병졸들과 몇 명의 장교들로써 둘러싸였다. (중략) 최후의 순간에 조야는 남녀 팔호즈니크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높고 똑똑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 ‘동무들! 더 용감해지시오! 투쟁하시오! 파시스트를 때리시오! 동무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인민을 위하여 죽는 것은 행복입니다.’ 조야는 경비 사령 쪽에 머리를 돌리고 그에게 또 독일 병졸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당신들은 지금 나를 교수하나 나는 혼자뿐이 아니다. 우리는 2억이 되니, 당신네들은 이를 다 교수하지 못하리라. 나를 위하여 우리 인민은 당신들에게 복수할 것이요 병졸들이여! 아직 늦지 않으니까 행복해라! 아무래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동무들! 리별입니다. 투쟁하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쓰딸린은 우리와 함께! 쓰딸린은 옵니다.’ (하략)”, 420~421쪽

25) 남한의 교육자들이 보기에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될 생경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64과 빨치산의 딸”에는 주인공의 계급적 분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네를 지날 때마다 두터운 옷에 폭신한 털모자를 쓴 계 또래의 아이들이 추운 겨울 다 찢어진 헌옷을 입고 떨고 가는 만금이를 보고 비웃고 놀리었습니다. 그럴 때

헌신, 비타협, 용맹, 희생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내면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의 소년 소녀들의 투쟁을 읽게 함으로써 그러한 투쟁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소년뿐만 아니라 소녀들의 적극적인 투쟁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혁명 투쟁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 혁명 투사들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형으로 제시된 강력한 모델이었다.

## (2) 군인: 해방군

교과서 내용의 배경은 혁명 상황, 제2차 세계대전, 독립 투쟁 등 전투 상황이 가장 많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등장 인물은 군인이나 혁명 투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과서에는 앞에서 언급한 소년 소녀 혁명가뿐만 아니라 군인이 등장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군인은 직업인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소련군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소련군 병사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을 반대하기 위해 얼마나 피흘렸는지에 대해 다루고, 그들의 용기와 자기 희생을 찬양하였다. 소련군의 희생으로 조선이 해방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였다.

또한 항일 혁명 투사들의 고난과 투쟁을 서사적으로 다루었고, 새로 창군된 조선인민군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묘사하였다. 한편 외세에 대항하여 싸운 명장(名將)을 역사상의 위인으로 부각시켰다. 을지문덕과 이순신은

---

마다 어린 만금이의 가슴은 설레이고 분한 생각에 이가 갈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홍… 너희들은 원수 왜놈에서 빌붙어 개질하는 너의 부모 덕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누나. 개자식들! 나는 이렇게 험벗고 굶주려도 뼈것한 사람이다. 원수 왜놈들과 개질하는 너희 놈들이 아무리 나를 사람 대접 안해도 나는 원수를 미워할 줄 알고 싸울 줄도 아는 사람이다’”, 315쪽.

조선 이전의 역사상 인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요컨대 교과서에는 소련군, 인민군, 무인 등 군인을 자주 등장시켜 학생들에게 혁명기와 전시에 발휘해야 할 헌신과 용기에 대해서 가르쳤다.

### (3) 지식인: 혁명적 지식인

지식인은 교과서에 등장하지만, 그들이 현실 개혁과 인민의 복지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경우에 한하였다. 교과서에 소개된 지식인들은 주로 러시아의 혁명적 지식인이다. 그람시의 표현에 따르면, 교과서에 등장하는 지식인은 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지원하는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이다.<sup>26)</sup>

“27과 레닌은 어떻게 공부하였는가”에서는 레닌이 혁명 운동에 가담하여 대학에서 퇴학당한 후에도 열심히 독학하여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음을 기술하였다. “24과 네크라소프의 소년 시절”에서는 그가 악덕 지주 아버지를 두었으나 러시아 농민의 삶에 깊은 애정을 지닌 시인이었음을 높이 평가했고, “32과 미하일 와셀리위츠 로모노소프”에서는 그가 탐구하는 자세를 늘 견지하여 후에 모스크바대학을 창립하고 인민을 위해 연구했던 것을 가치 있게 다루었다. “22과 뿌쉬킨의 소년 시대”에서는 제정 러시아 시기에 대부분의 귀족들이 프랑스어를 학습하고 러시아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푸시킨은 모국어 학습을 강조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러시아 문호 고리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26)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지식인의 개념을 전통적 지식인과 유기적 지식인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지식인은 학자, 문필가, 과학자 등 그가 수행하는 직업에 의해 분류되는 지식인 범주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계급 사회에서 그들이 유기적으로 귀속되는 계급의 이해와 열망을 지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옮김, 『그람시의 옥중수고 2』(서울: 거름, 1999), 11~34쪽.



고리끼 선생은 힘든 로동을 하고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또 한시라도 책을 읽은 적이 없었다. (중략) 선생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서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고리끼 선생은 하루바삐 인민을 못살게 구는 황제 제도를 꺼꾸러뜨리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인민의 나라를 세울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중략) 고리끼 선생은 어느 때나 불쌍한 사람의 편이었으며, 근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었다. 선생은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로씨야 혁명에 있어서의 위대한 선전원으로 빛나는 공적을 쌓았다. (34과, 고리끼 선생의 소년시대)

지식인이 소개되는 것은 그들이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몸바쳤기 때문이다. 유약한 지식인이나 민중의 삶과 유리되어 이론에만 천착한 지식인들은 교과서의 인물로 등장하지 않았다.

#### (4) 농민: 행복한 자작농

농민들은 토지 개혁 이후 농촌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서술하는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토지 개혁이 있는 후에 첫 수확을 맞은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을 묘사하거나(12과), 봉건 사회에서 “살기가 죽기보다 고생스럽다”고 생각했던 농민들의 삶이 해방 후 소작제도의 폐지로 물질적 형편이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 문화적으로 발전했다는 해방전후의 변화를 대비시켰다(68과). 농민들의 삶의 변화는 김일성 장군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었다.

눈 들어 바라보면 / 푸른 논판이 하늘에 끝나고

눈 들어 바라보면 / 줄쳐 선 새 기와집이 보란 듯이 나서고

어디선가 노래소리 들려라 / 김장군 노래소리. (70과, 보퉁에서)

교과서의 작품들은 토지 개혁으로 자작지를 분여받은 것이 행복한 만큼 농민에게 부과된 의무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민의 의무는 전체 인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농사에 최선을 다하고, 북한 농민의 행복한 삶을 남한 농민들도 누릴 수 있게 조국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시로 표현되었다.

목여은 땅에다 새 논을 풀자고 /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심술이 난 지주들 비방을 했어도 / 오늘을 봐란 듯이 모내기를 한다.  
우리 힘 이처럼 자라 모내기한다.// (중략)

그곳은 / 인민의 목숨을 책임진 자리 / 그 자리로 가고 싶어  
수천 수만 포기 벳모들은 / 탐스러운 처녀처럼 자라났다.// (중략)

우리 마을이여! / 우리 논이여! / 오늘은 모두들 모내기하건만  
절반 논이 비었구나 / 제 주인을 찾지 못한 / 남조선 벳포기들을 잇을 수 없  
어라!//

모내기하는 날아! / 모내기하는 날아! / 남조선도 함께 모내기하는 날이여!  
우리들은 그 날을 위하여 싸운다. (84과, 모내기하는 날)

농민의 임무는 식량 증산에 최선을 다하고 조국 통일에 힘쓴다는 것 말고도, 국가에 대한 현물세 납부 의무를 자진하여 수행한다는 것이다. 현물세 납부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늙은 아버지가 씨앗을 뿌리고 / 병드신 어머니마저 □□려도<sup>27)</sup>  
이렇게 서럽던 가난한 살림을 / 우리 김일성 장군은 살피주셨다// (중략)

집에서는 /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 / 현물세 넣을 가마니를 짜고  
우리는 / 뽕은 가을벌레/ 새 조선을 속삭이는 이삭을  
한 포기 두 포기 거두기에 바쁘다. (12과, 첫가을)

과거에 가난했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해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감사와 인민의 납세 의무를 표현하였다. 봉건제하에서 고통받아 온 노부모는 아직 수확을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물세를 바칠 가마니를 짜고 있다고 표현하여 해방전 후의 농민 삶의 변화와 인민의 의무를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 (5) 노동자: 건설의 역군

노동자가 등장하는 과는 농민이 등장하는 과에 비해 수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러나 해방 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었으며,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더욱더 생산량 배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제시되었다.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노동자의 감상을 수필 형식으로 적은 단원에서 이 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어루만져도 티 하나 안 묻는 다다미라든지, 내다보이는 맑은 산수라든지 고요한 속에 이 몸의 행복과 희열을 자아낸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미움을 새롭게 해서 생산 의욕을 더욱더욱 북돋우어 주는 이곳이 얼마나 고마운가! (중략) 동무여! 이같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휴양의 혜택까지 받고 보

---

27) □□는 독해 불가능한 글자.

니 감개 무량하다. 그렇지만 해방 후 나는 과연 공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했던 말인가? 가지가지의 로력과 열성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앞을 선다. (중략) 나는 인제 휴양소에서 돌아가면 몇 배의 열성으로 일을 하겠다. 나는 마땅히 이런 혜택을 받은 자로써 이러한 각오를 해야겠다고 휴양소에 와서 더 한층 절실히 느낀다. 앞날의 그것을 위하여 동무는 맡은 바 책임과 과업을 유감없이 다할 줄 믿고, 나는 다시금 우리 로동자에게 이런 행복을 주신 인민 정권을 더 굳게 받들 것을 맹세한다. (4과, 공장에 있는 동무에게)

작가는 석왕사에 있는 일본인 별장에서 휴양할 기회를 가진 노동자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일본인 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해방 이후 이루어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위 글은 이 감격을 공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작가는 휴양이 끝나서 돌아가면 몇 배로 열심히 일할 것과 인민 정권을 더 굳게 지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과에서는 일제 패망 후 멈춘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 힘쓴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 전문가들이 빠져나간 후 멈춰버린 황해제철소의 용광로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들에 대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반드시 부속 설비품과 주 용광로 건설 및 수선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용광로 재선과장 염식씨가 인권을 얻어가지고 일어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용광로 복구 사업에는 비상한 난관과 복잡성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써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다같이 힘을 합하여 용감하게 공사에 착수하여 자기들의 창발력을 짜냅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가 이 공사를 성

공할 것을 기다리는 인민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어려운 공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조선 사람은 능히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로 시위합니다. 지배인실엔 우레같은 박수가 일어났다. (중략) 여러 모범 로동자들은 밤과 낮을 공장 내에서 나오지 않았다. (중략) 장엄한 시작은 닦쳐왔다. (중략) 시뻘건 주철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우레같은 박수와 함께 복구 공사에 참가한 로동자들을 축하하는 환성이 울랐다. (중략) 이리하여 북조선은 자기 손으로 생산한 주철을 받게 되었다. (67과, 제3호 용광로)

노동자들이 ‘창발성’을 발휘하여 밤낮으로 복구 사업을 벌인 결과 용광로를 복구하고, 주철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한 노동자의 말을 빌려 노동자가 공장을 복구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고 지지하는 전체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 실린 노동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전체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농민은 인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증산에 힘쓰고, 노동자는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공장을 가동시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표현하였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등장 인물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물이 누구이며, 본분이 무엇인지를 여러 형태로 제시하였다.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선에서 싸우는 애국적인 투사, 적과의 투쟁에서 집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적인 인간, 근로 인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며 사회혁명을 위해 싸우는 지식인, 국가와 사회를 위해 증산에 힘쓰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농민과 노동자, 지도자를 존경하며 그의 지도하에 굳게 단결하는 인민 등이다. 이러한 인간형을 표현하는 데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여성들도 적과의 투쟁에 용감히 싸운 투사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인

간형은 북한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민의 모습이기도 했다.

교과 지식의 성격은 역사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북한의 초기 국가 건설기의 교과 지식은 국가 건설이라는 혁명적 과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건국 투사의 신심”을 갖도록 애국적인 인간을 모델링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들의 삶을 모범으로 본받아 학생들도 국가 건설에 헌신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였다. 요컨대 교과서 내용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헌신하는 애국적 인민을 양성하기 위해 선정된 지식이었다.

#### 4. 맺음말

해방 직후 북한 정권은 식민지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개조하는 거대한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토지 개혁을 통해 봉건적 소작 제도를 철폐하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기간 산업을 국가가 접수하는 등 일련의 경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남녀 평등법, 노동법령의 제정 등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 개정을 완수하였다. 북한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한 당이 위로부터의 권력 행사를 통해 경제적 토대와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혁명의 힘은 인민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당에 의해서 행사되었다. ‘위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동의 확보와 동원이 관건이었다. 인민의 동의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은 낙후된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인민의 동의 확보와 동원은 각종 선전 기관과 정치 조직에 의해 수행되었

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었다.

교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 개혁에 동참할 인민 양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회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새로운 세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사회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당과 정권은 국가가 전적으로 교육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일련의 개혁을 수행하였다. 사립 학교와 전통 교육 기관을 폐쇄하여 공립 학교로 개편하고, 공립 학교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여 학령 인구 가운데 가급적 많은 수를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였다.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학교 교육 발전을 극히 저해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학교 체계의 정비와 교육 기회의 광범위한 확대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권의 교육 기회 확대 정책은 인민의 호응을 얻었고 단시간에 광범한 학교 건설이 이루어져, 한국전쟁 전에 이미 인민 학교 완전 취학을 이룩하였다.

당과 정권이 교육 기회 확대 정책과 동시에 추진한 것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민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헌신하는 인민 양성을 위해 국가는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육 과정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과 교육을 국가가 관리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곤란한 조건 속에서도 국정 교과서가 발행, 배포되었다. 곧이어 이 교과서의 지식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제작되어, 일선 학교에 하달되었다. 교사들은 이 지침에 따라 교수안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교수안은 사전에 검열받았다. 교수안 검열 제도는 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박탈하였다. 학생들의 1년간 학습 결과는 최종적으로 국가 시험에 의해 평가되었다. 국가 시험에는 당과 사회 단체가 관여하여, 교과 교육은 학교의 일을 넘어서 정치 조직의 개입을 받게 되었다. 요컨대 북한에는 사회주의 인민 양성을 통해 사회주

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학교 지식의 선정, 전달, 평가를 전적으로 국가 기구가 관리하는 체제를 단시간에 갖추었다.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학생들이 학습한 교과 지식은 삶의 방식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담고 있다. 노동과 근면, 지도자에 대한 충성, 남녀 평등은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부터 강조된 중요한 규범이었다. 한편 학생들은 교과를 통해 인민의 본분에 대해 학습하였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람직한 인간상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등장 인물들은 남녀 노소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애국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 자신이 속한 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한다. 5학년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독자들이 12세 소년 소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미와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서사적인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학생들에게 혁명과 전쟁 시기에 조국수호에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정치에 포섭되었다. 교육의 상대적인 자율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교사 집단을 포함하여 다른 집단이 교육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여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사회주의적 인민으로서의 태도와 자질을 내면화 하도록 훈련시켰다. 새로운 세대의 교육은 그들이 이후 사회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미래를 위한 계획적인 투자이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교수론』(평양 : 로동신문사, 1948).

교육성, 『국어(인민학교 5학년)』(평양 : 강원인민보사, 1949).

-----, 『국어(인민학교 1학년)』(평양 : 국영제일인쇄소, 1949).

-----, 『해방 후 10년간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55).

김성환, “국어과 교재를 통한 애국주의 사상의 교양”, 『인민교육』, 제8호(1949).

-----, “국어과교수법의 실제론”, 『인민교육』, 제2호(1947).

리선섭, “국문교수상 유의할 점”, 『인민교육』, 제5호(1947).

문철,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 민주교육의 회고와 전망 : 교과서 편찬사업”, 『인민교육』, 8·15 기념호(1949).

송진파, “새로 제정된 각급학교 규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인민교육』, 제3호(1950).

신원우, “제일차 교과서 편집을 마치고”, 『인민교육』, 제3호(1947).

『인민교육』(평양 : 북조선교원문화일군동맹, 1947~195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0).

### <2차 자료>

권영민 외, 『월북문인연구』(서울 : 문학사상사, 1989).

신효숙,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에니언, “이데올로기와 미국교과서”, 이인효 편역, 『교육과 사회』(서울 :

교육과학사, 1991).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 1945~1950”(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현수, 『적치 6년의 북한문단』(서울 : 국민사상지도원, 1951).

Apple, Michael W., *Official Knowledge : Democratic Education in Conservative Age*(New York : Routledge, 1993).

(Abstract)

## **“Official Knowledge” in North Korea, 1945~1950: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xt Books**

Lee Hyang Kyu(Seoul University, Educ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wo questions. (1) How was “official knowledge”, in this case school textbook content, select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apparatus? (2) What was the nature of this textbook-based knowledge as appli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th of these questions are examined within the context of early state formation in North Korea from 1945~1950.

The state apparatus exercised control over the school curriculum at all times and at all levels.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in 1945 saw the immediate introduction of a new, common school curriculu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textbooks, with accompanying teaching guides, were written by authors selected by the ministry and censored before publication. Teachers were required to adhere to these guides when creating lesson

plans, and these plans were in turn either approved or censored by the head teacher and school principal. Student progress was evaluated through end of year national exams by the examining committee comprised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ors, party members, and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leagues, as well as the school teachers themselves.

One of the principal aims of this process was to evaluate classroom-based learning based on the students' evolving political attitudes and consciousness. This system, which sought to control textbook and "official knowledge" from selection of material to transmission and evaluation was established within the space of three years.

Under this system of state control, textbooks sought to represent and promote socialist ideas that could aid the wider process of state formation underway in North Korea at this time. When characterizing textbook content, a number of messages that become clearly visible were the value of work (particularly manual labor) and loyalty to leadership in the form of Kim Il Sung. In addition, through literary texts, students were presented with a number of ideals and role models-child soldiers (both boys and girls) who fought for their country, "organic intellectuals" such as Russian socialist novelists and scholars, and farmers and workers.

This powerful, centralized system of control over school and textbook-based learning contributed to the education of the new society, the members of which, it was hoped, would gradually internalize socialist ideas and thus constitute a population who could sustain

society in the future.

Key words : North Korean Education, Official Knowledge, Textbook.